



대전주보

2020년 사목지표

소통과 친교를 이루는 교구 공동체
- 교구 시노드 정신이 뿌리내리는 해 -

발행 유흥식(제2594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전화 042·630·7700 팩스 042·630·7755
주소 34539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86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 원머리 성지는 '내포의 사도'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가 내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1785년부터 조선 교회의 시작과 함께 교우촌이 형성된 아주 오래된 곳이다.

신평 원머리 성지

충남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233번지

연중 제26주일(이민의 날) 2020년 9월 27일(가해)

제1독서 예제 18,25-28

제2독서 필리 2,1-11

화답송

-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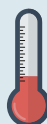
복음 마태 21,28-32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2019.12.1~2020.11.28



한끼100원나눔운동 2020년 사랑의 온도현황 38.9℃

2020년 총 모금액 389,858,941원

9.11~15 모금액 본당 1,442,970원 / 단체 및 개인 4,517,520원



주님의 기준을 기억하고 행하자



안성준 도미니코
이주사목부 대전모이세 전담

개인적으로 저는 무슨 날이라는 기념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념할 정도로 중요한 날이라면 매일매일의 삶이, 순간순간의 생각과 판단이, 기념일이 기억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념일은 세상살이에 지쳐, 그저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 가치를 떠오르게 하고, 타성에 젖어 잊혀진 그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기념일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기에, 나약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이자 이민의 날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 시대.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정의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과연 올바른 기준을 담고 있을까?

오늘 제1독서에서 예제키엘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나?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곧 적어도 믿는 이들에게 공정과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

는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당연하다 여겨왔던 세상의 기준들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주민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들 외국인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하느님 나라를 떠난 우리 모두가 이주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여러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겪으면서도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이 보여 주신 삶의 모범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때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희망을 담고 살아간다 한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삶의 부정적 요소를 다시금 경험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민의 날, 특별히 낯선 문화와 환경과 언어 안에서 삶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부정적 요소보다는 긍정적 요소를 더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8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를 통해 “이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라는 네 가지 동사를 제시하셨고, 2020년 담화문을 통해, 네 가지 동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여섯 쌍의 동사를 제시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위하여 알기” “봉사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기” “화해하기 위하여 귀 기울이기” “성장하기 위하여 함께 나누기” “발전하기 위하여 참여하기” “건설하기 위하여 협력하기”.

부디 우리 모두가 이 동사를 기억하고 행함으로써 내가 만나는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듯 삶의 긍정적 요소를 느끼길 희망합니다.



바울이

(880)

유판식 토마스





사회와 교회를 잇는 길잡이

사잇길

꼭 한번 읽어 봅시다!

최근 한 TV프로에 문과, 이과 출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이 일전에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화제가 되어 신학생 시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난다. 여기서 공통점은 같은 일이나 장면이라도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도, 서로 간의 공존과 이해를 도모하여 마침내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고 나서인지 언제인지 모를 노트 한 권에 이런 말을 써 두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긴장과 원망과 불화가 생겨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생각에 상대를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에서 시작된 생각의 고리들은 결국 일정한 사고의 형태로 고정되어 선입견과 편견을 갖는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옳은 것도 옳지 않게, 좋은 것도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바라보며, 모두의 불협화음과 투쟁의 장만을 생각하기 일쑤다.

나 역시 그렇지 않기를 바랬던가. 아래에는 마태오 복음의 황금률을 써 두었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마태 7,12).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6월28일). 이 법

안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어떤 누구도 특별한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곧 “차별금지법안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는 내용으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총 57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히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1항)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는 교회는 공감한다. 교회는 언제나 “인간의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사목 헌장 29항)고 가르쳐 왔다. 하지만 법안의 일부 조항들에 대한 교회의 우려가 있다.

혹시 교구 홈페이지 알림(란)에 있는, 혹은 교회의 신문들에서 읽어 본 적이 있는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라는 것. 꼭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 모두 세상과 더불어 교회의 목소리에,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이영일 야고보 신부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대전교구 담당

아뉴스데이 글·그림 이순구(베네딕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날들입니다.

깊은 곳에
잠들었던 사랑을
일깨우기 좋은
날들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1868년 무진년 가을 벼 타작을 하던 박 마르코와 박 마티아가 체포되어 옥에 갇힌 지 15일 후 둘은 함께 순교했다.

사진 : 대전가톨릭사진가회

신평 원머리 성지

무진박해 때 순교한
박선진 마르코와 박태진 마티아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다.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에 있는 원머리 성지는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가 내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1785년부터 조선 교회의 시작과 함께 교우촌이 형성된 아주 오래된 곳이다. ‘원머리’라는 명칭은 바닷가 갯벌을 논으로 개간하여 사용하기 위해 독을 쌓은 ‘언(堰)의 첫머리’에서 유래한 이름인 ‘언두리’가 변형되어 생긴 말이다. 지역의 자연환경상 이곳에서 살았던 신자들은 염전, 어업, 농업에 종사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

1866년부터 시작된 병인박해 시기에 원머리 출신 20명의 신자들이 홍주와 해미, 수원에서 순교하였다. 특별히 1868년 무진박해 때 수원 감옥에서 순교한 박선진 마르코와 박태진 마티아의 유해가 원머리 성지에 안장되어 있다. 순교자 박선진 마르코는 천주 신앙을 받아들인 모친으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하게 되었는데, 외교인이던 부친이 천주교를 엄금한 까닭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의 부친은 사제가 원머리에 와서 성사를 줄 때마다 가족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그는 부친으로부터 가정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뜻에 따라 열심히 수계하는 모범을 보여주었고, 원머리 교우들과도 비밀리에 교류하면서 신앙을 굳게 지켰다. 그의 동생 박 요셉에 따르면 1868년 무진년 가을 벼 타작을 하던 중 박 마르코와 박 마티아는 체포되어 수원으로 잡혀갔다고 한다. 그는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면서 “천주님의 뜻대로 천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하였다. 또한, 박 마티아가 모진 고문을 못 이겨 배교할 뜻을 비치자 “주님을 배반하고 영원한 지옥벌을 받으려 하느냐?”고 깨우쳐, 옥에 갇힌 지 15일 후 둘은 함께 순교하게 되었다.

원머리 성지가 교회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순교자들의 무덤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들이 순교하고 난 후 이들의 시신은 같은 마을에 살던 외교인 서덕행이 거두어 원머리의 박씨 집안 땅에 안장하였다. 1989년 4월 4일 두 순교자의 유해를 신평 성당 구내로 옮겨 모시며 현양비를 세웠다. 2009년 11월 3일에는 순교자 현양과 성지 개발을 위해 본래 두 순교자가 묻혔던 원머리 순교사적지 묘역으로 유해를 다시 이장하였다. 그리고 현양비로 수정하여 다시 세우고 묘역 또한 재정비하였다. 현재 두 순교자는 한국교회에서 진행 중인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추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수족냉증2

겨울철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손발 시림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단순히 체질 탓으로 생각하고 넘기기도 하는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손발 시림의 원인은 신경장애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레이노병처럼 혈관장애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레이노병, 버거병, 동맥경화 등 혈관문제도 원인

손발 시림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혈관의 문제가 있다. 레이노병은 팔다리의 동맥에 간헐적 수축이 일어나서 혈액이 통하지 않아 손발 끝이 하얗게 창백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런 경우 실제 손발을 만지면 피부가 차다. 갑자기 추운 환경에 손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혈관 확장제와 같은 약물요법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 버거병은 레이노병과 마찬가지로 팔다리 혈관의 문제로 피가 통하지 않아 팔다리에 색깔이 변하고 통증이 발생한다. 걷기 등 운동 시에는 다리에 혈액의 공급이 더 필요한데 혈관을 통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므로

운동 시 통증, 즉 파행 현상이 발생한다. 심한 경우 팔다리의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돼 괴사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버거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흡연이 중요한 발생과 악화 인자로 돼 있으므로 금연해야 한다. 또한 전문클리닉을 방문해 말초혈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며 약물요법 혹은 수술요법도 고려해야 한다. 레이노병, 버거병 이외에도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주요한 원인은 동맥경화이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가진 사람이 수족냉증이 있으면 말초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발 시림은 일상적으로 매우 성가시고 불편한 증상으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유산소운동이 권장되고 특히 당뇨환자의 경우 적절한 혈당관리와 금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증상이 지속되고 심하면 신경과, 류마티스내과, 외과 등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과 이택준 교수

내 탓이로소이다!

송영미 마크라 (탄방동본당)

초록 들녘에 가을꽃들이 풀벌레 벗 삼아 행복한 사랑을 안고 곱게 피어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아파서 한 잎 한 잎 손가락 퍼듯 천천히 피어납니다. 인위적으로 나온 누에고치는 나비로 며칠 날지도 못하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공적인 과학이 자연을 무너뜨리고 인간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명예와 재물 탐욕에 눈먼 장님이 되고 귀병어리로 살아왔고 지금도 ...ing입니다. 지금은 부강한 나라, GNP, GDP 높아진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입는것이 풍족한 시대에 왜 자연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난했을 때의 어린 시절이 더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이웃사랑의 나눔이 그냥 순리대로 흐르는 물이었으니까요.

온 세상을 코로나19가 덮쳤습니다. 저 멀리서 인재의 물결이 넘실거리며 큰 물결로 다가와 파도를칩니다.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의 신호로 빨간 바이러스 메르스, 사스

의 파도가 영혼을 앗아갈 때도 나는 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빠르게 속도를 내며 크고 작은 파도를 치며 밀려와 우리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정치인 때문이고, 세상을 만든 하느님 때문이라고 분노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자연과 어떤 교류를 했는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의 사랑을 품고 나누며 살아왔는지 이제 우리 모두는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우선적인 것은 무엇일까. 난 내가 이 세상의 한 존재로서 무질서 안에 질서 있게 살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느님 뜻 안에서 성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이오.’라는 질서로 바로 서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를 고백하며 산 제물로 봉헌되는 성체성사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함께하는 이야기마당



모든 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코너이며,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주소와 연락처 기재 필수).

원고 : 수필, 원고지 5장 및 A4 용지 20줄 이내 / 원고 초과 및 편집에 따라 일부 수정, 지면상 “시”는 받지 않음.

문의 : (042)630-7751 교구 홍보국 / 보내실 곳 : 대전 동구 송촌남로11번길 86 대전교구청 홍보국, tjubo@hanmail.net



알립니다

송국섭(요셉) 사제 부친 선종

송국섭(요셉) 사제의 부친 송영래(베드로, 향년 72세)님께서 2020년 9월 20일(주일)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9월 22일(화) 봉헌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석태(베드로) 사제 모친 선종

김석태(베드로) 사제의 모친 최순례(멜라니아, 향년 86세)님께서 2020년 9월 20일(주일)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9월 23일(수) 오전 10시 강경성당에서 총대리 김중수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구알림

성환공원묘원 추석합동 위령미사 취소 안내

- 코로나19로 인하여 성환공원묘원 추석합동 위령미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전담사목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ME 소개

- 대상 : 혼인 2년이상 된 부부(종교불문), 성직자, 수도자
- 문의및신청 : 010-6415-0174, 010-5480-5175
- 인터넷검색창 : 대전교구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co.kr>

제12차 약혼자주말

- 때 : 12.18(금) 20:00~20(주일) 17:00
- 곳 : 부강 엠마우스 피정의 집
- 대상 :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혼인강좌 수료 증수여), 혼인 2년 미만 신혼부부
- 수강료 : 1인 13만원
- 문의 : (042)256-5487~8 가정사목부
- 인터넷검색창 : 대전교구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co.kr>

아자리아 예비단원 모집

- 대상 : 만 32세 이하 미혼 남녀
- 조건 : 성령 묵상회를 이수한 누구나
- 문의 : (042)824-6773
- 인스타그램 : azariah_1985

치유미사

- 때 · 곳 : 매주 화 14:00, 새얼센터
- 내용 : 미사, 치유기도(영적, 내적, 외적) 등
- 비고 : 10.1(목) 추석 연휴로 기도회 휴회
- 문의 : (042)824-6771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보건복지부 지원 '치매안심병원'
- 신경과 개설 운영
- 주일 · 평일 미사 및 봉성체
- 문의 : (041)950-1008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느루 근로장애인 모집

-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발달장애(지적, 자폐성)로 출 · 퇴근이 가능해야 함
- 문의 : (042)637-2257 느루 보호작업장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둔산동 삼천교 네거리 부근
- 상담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 가정문제 부부갈등, 자녀문제, 가정폭력, 가정법률 그 외 기타(심리검사)
- 상담방법 : 전화, 면접, 서신(Fax 포함)
E-mail : domestic-vc@hanmail.net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 비밀, 무료상담
- 문의 : (042)636-2033~4, Fax 636-2035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성가정입양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 문의 : (02)764-4741~3 www.holyfacc.or.kr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원서접수 : 9.23(수) 09:00~28(월) 18:00
- 모집학과 :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 전형 : 성직자추천전형 등 8개 전형
- 담당 : 권혁민 입학사정관 (051)510-0705

2021학년도 노비파스 음악 중 ·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 대상 : 사회복지(양육)시설 거주 여학생
- 인원 : 2021학년도 중학교 1학년 12명
- 모집기간 : 10.16(금)~26(월)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210번길 325
- 문의 : 교 (031)584-1130 행) 070-8953-1009
교감) 070-4129-7072
- 소속 :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원죄 없으신 성모가시회 신심미사

- 때 : 매월 둘째 주 토 09:30
칠락묵주기도 10:00 미사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마리아사제운동(MSM)체나콜로 월레미사

- 때 : 10.3(토) 10:00
- 곳 : 덕산성당
- 내용 : 성모신심미사(양형성체) 및 체나콜로
- 문의 : 010-5184-8696

파티마 세계사도직(셀) 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10.3(토) 시작기도 09:30, 미사 10:30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 문의 : 010-4939-8688

베타니아 성물센터 목주반지, 전례복, 전례용품 국내외 성물 T. (042)226-8980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영(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 (042)532-7009	대전성모안과 원장: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솔믹우드산림산업(주) "산주님 고민하십니까?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리경영)" 대표 박성현(토마스) T. (041)751-8833	이안과병원 63주년 기념 전문분야별 6인 진료 T. (042)220-5500, 220-5701
이바르게 치과교정과 치과 원장 : 홍성규(미카엘) 교정전문의 브라켓없는 3D 디지털투영교정 이바르게가 함께합니다(1996개원)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맑은눈 안과 라식, 라섹, 노안, 백내장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한강 외과 치질, 대장내시경, 외과수술 김성철(대철베드로) 오룡역 2번 출구 T. (042)523-9856	척추 · 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 · 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효안과 (전, 눈빛안과) 노안 · 백내장 · 라식 · 라섹 이효(바오로) T. (042)486-5050 둔산동 1110번지 8층 경성르마를 사거리	40년 전통 < 팔보요소 > ▶ 정하상 효소피장 ▶ 기혈적단식 ▶ 해독요법 ▶ 부모님 건강 선물 ▶ 미 · 중국 수출 ▶ 지리산 산청 발효 www.palbo.co.kr T. 1600-0830	이광우 치과 원장 이광우 타데오 타임월드 별관 2층 T. (042)483-7528, 489-7528	광고 모집 (042)257-0190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천주교 대전교구 합창단 단원모집

- 연습 : 매주 화 20:00, 원신흥동성당
- 문의 : 010-9656-2295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 단장 : 서옥경 가타리나



수도회 및 피정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모임

- 때 : 수시로
 - 곳 :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 문의 : (043)295-5940
- cpnunskorea@catholic.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때 : 10.11(주일) 09:30
- 곳 : 서울 돈암동본부
- 문의 : 010-9937-0901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 대상 :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 문의 : 010-8715-2846 성소국장

신·구약 성경 완독피정 (8박9일)

- 때 : 10.16(금)~24(토)
- 문의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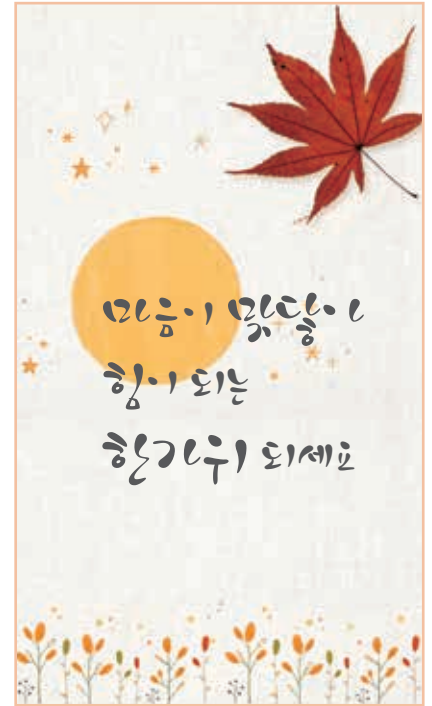
유사종교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 문의 : 010-5812-0192, 010-5812-0193(대학생, 청년)
 - E-mail : yusadaejeon@gmail.com
- 교구 유사종교 대책위원회

cpbc 대전가톨릭평화방송

FM 106.3MHz 「오늘의 강론」

9월 28일(월)~10월 3일(토) 오전 6시 50분
솔희성지 보좌 김수형 신부 편



산내 · 성환공원묘원 봉안(납골)담 분양 안내

◎ 가격

- 1인실 사용료 2,500,000원(산내) / 3,500,000원(성환)
- 관리비는 20년간 500,000원

◎ 문의

- (042)630-7734 교구청 관리국
- (041)546-7265 성환묘원 사무실



천주교와 개신교<개정판>

박도식 신부 지음 / 140쪽 / 가톨릭출판사 / 10,000원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천주교를 마리아교라고 하거나 성모님이나 예수님 상을 보고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오해를 잘 설명해 주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분들에게 성경과 신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알려 줍니다. 흥미롭게 이어지는 대화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며, 가톨릭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어 교리를 잘 모르는 예비 신자도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광고 모집 (042)257-0190	이화병원 (041)579-1400 산부인과, 내과, 암케어센터, 공단검진 3D유방초음파, 영상의학과, 산후조리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남선익스프레스 (행복나눔 이사) 이승원(요한 보스코) 김영숙(살비아) T. 1877-9924, 010-6671-2489	광고 모집 (042)257-0190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 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중앙빌딩 4층(한경부 앳)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코
광고 모집 (042)257-0190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홈플러스 옆	광고 모집 (042)257-0190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라파엘여행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T. (02)778-8565 www.clubraphael.co.kr
비움 심리상담센터 정부청사역 T. (042)863-9877 부부가족, 아동청소년, 우울 트라우마, 불안, 왕따	대전베스트정형외과 척추, 관절, 외상 전문 대표원장 양준영(가톨릭) 전충남의대 교수 T.(042)345-7700 유성구 봉명동 604-1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김벨피부과병원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042)471-7575

이주민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

모든 이를 차별 없이 환대하는 것은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8 참조).

2020년, 전 세계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과 슬픔, 절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20년 주님 부활 대축일 메시지를 통하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이주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돕는 것이 각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지 ‘이주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이웃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거부당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비오 12세의 교황령 「이민 가정」(Exsul Familia, 1952.8.1)을 인용하시며 요셉,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하셔야 했던 예수님께서 ‘이주민’의 표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로데의 박해를 피하여 강제로 피신하셔야 했던 예수님께서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주민’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얼굴에서 굶주리시고, 목말라하시며,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나그네이시며, 감옥에 갇히신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태 25,31-46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20년 제106차 세계 이민의 날을 맞아, 2018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를 통하여 발표하신 “환대, 보호, 증진, 통합”이라는 사목 과제를 더 발전시켜 ‘이주민’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이해하기** 위하여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루카 24,15-16 참조). 우리가 ‘이주민’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그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봉사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수많은 봉사자들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화해하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요한 3,16-17). 화해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랑은 귀 기울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성장하기** 위하여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본질입니다(사도 4,32 참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지구상의 모든 이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고,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다섯째, **발전하기** 위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에게 공동 책임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도 무시당하는 이 없이 모든 이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건설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1코린 1,10).

2020년,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위기 해결이라는 과제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헤로데의 박해를 피하여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하셔야 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 옆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민’을 돌아봅시다. 나아가 우리 모두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2020년 9월 27일, 이민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신철 주교

QR코드 스캔
담화 전문 보기

